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28과 성소정결 사업과 교회 개혁

[단8:13,14]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성소정결 사업은 2300주야 끝에 있을 것인데, 그때는 세 가지 사실이 회복될 것이다. 즉 헐어버린 성소를 회복하고 매일의 봉사를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2300주야 끝에 있어야 할까? 진즉 회복하면 안 되는 것인가? 성소가 헐리는 일이 없으면 회복할 필요가 없고 제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진리가 땅에 던져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회복할 필요가 없다. 2300주야 끝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장본인이 작은 뿔이다. 성소정결은 작은 뿔이 발호하여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있는 후에 있을 일이다. 이 작은 뿔의 발호와 그 영향이 세상 끝 날까지 가겠지만 어느 시점에 정결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를 가르쳐준 것이 바로 2300주야이다. 이제 성소를 허는 것과 그것이 회복되는 사실을 성경과 역사에서 찾아보자.

1. 2300주야의 끝

2300주야의 시작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다.

[스7:8,9]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칠년 오월이라 9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5월이었다. 5월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다. 그들이 맞을 첫 절기는 나팔절인 7월 1일과 다음이 바로 대속죄일인 7월 10일이다.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 진다고 했는데, 성소정결은 대속죄일에 있는 봉사이다. 그러므로 2300주야 시작이 기원전 457년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483년 되었을 때 곧 기원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기름부음을 받았고, 스테반의 순교로 70이레 기간이 끝났으며 그 다음 18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소가 헐리고 매일의 봉사를 작은 뿔이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1844년에 성소정결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때가 바로 2300주야의 끝이다.

2. 성소를 허는 일이 일어남

[단8:10,11]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작은 뿔이 성소를 헐었고 제사를 차지하였다. 이 뿔은 로마에서 일어난 종교와 정치를 겸한 세력이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 세력이다. 이 세력은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헐 결과가 되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작은 뿔이

버티고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고 의미상으로 성소를 헌 것이 되었다.

[살후2:3-8]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불법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계시한다. 이것을 막는 자가 있는데,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가르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는 다니엘서 7:25에 예언되어 있다.

[단7: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세력이 나탈 때는, 넷째 짐승으로 표상된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 대이동 중에 망하여 10개의 나라가 성립된 후이며 그 중에 세 나라가 교황권에 의하여 망하게 된 후이다. 25과에서 공부한 내용을 잠깐 옮겨보자.

세 뿔이 나중 나온 작은 뿔에게 뿌리 채 뽑혔는데, 그것은 헤룰리(493), 반달스(534), 오스트로고트(538년)가 작은 뿔 세력에게 망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동로마 황제 제노(Zeno. 재위 474-491)가 487년에 동고트 족 추장 테오도릭(Theodoric)에게 헤룰리를 치도록 공식적으로 위촉하여 5년여의 걸친 전쟁으로 헤룰리가 역사에서 사라졌다.

테오도릭이 526년에 죽었는데, 527년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동로마 황제로 즉위하였다. 그는 카톨릭 교리를 신봉하는 황제로서 로마를 아리우스 주의 신봉자들이 동고트족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황제였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전(聖戰)을 일으키기로 작정하고 베르사리우스 장군을 보내어 반달스를 정벌하여 534년 트라마키움 전투를 끝으로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없앴다. 베르사리우스는 내친김에 돌이켜 로마를 차지하고 있는 동고트를 538년에 몰아냄으로 그들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런 일을 은근히 조장한 장본인을 역사에서 찾으려면 로마 교황권인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알게 된다. 로마 카톨릭은 서 로마가 망하자 로마 시에 있는 로마의 왕권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동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533년 로마교회의 감독이 모든 기독교의 머리(首長)라는 칙령을 발표한 것을, 아리안 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 칙령을 거부한 세 나라를 538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므로 이 칙령이 실시되게 되었다. 그래서 538년부터 교황 피우스6세가 나폴레옹에게 잡혀 죽을 때까지 1260년간 작은 뿔의 전성시대가 된 것이다.

533년에 내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는 동방 전역의 모든 사제들이 성하(聖下)의 권좌에 복종하고 연합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들의 지위에 관한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명백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다할지라도, 논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성하에게 알리지 아니

하고 지나쳐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점에서 우리는 당신의 권좌의 영광과 권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한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타날 자기의 때가 바로 이때이며, 이것을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한 것은 바울이 살아 있을 때와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로마를 다스린 제국 로마의 정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직접 말했다. 막는 자가 옮겨질 때 이 세력이 권세를 행사할 것이다.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것은 제국 로마가 망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살후 2:5-7의 내용이 이것을 가르친다. 다니엘 8장의 남편, 동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 작은 뿔의 제국로마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교황로마가 연장선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하늘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동시에 예수께서 성소봉사로 속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고해신부들로 대체되었고, 성경의 진리는 교회에서 사라졌다. 교인들은 소위 교회가 말하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금서(禁書)가 되어서 가지고 있거나 읽으면 죄인이 되어 처벌을 받았다. 진리를 땅에 던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여 깨달을 있는 모든 기회가 박탈되었다.

3. 어느 때까지 이를꼬?

[단8: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런 일이 2300주야까지 이를 것인데, 그때까지 서서히 이 작은 뿔 세력이 약화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1) 십자군 전쟁으로 교권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십자군 전쟁

1차. 1096-1099 2차. 1147-1149 3차. 1189-1192 4차. 1202-1204 5차. 1217-1221

6차 1228-1229 7차. 1248-1254 8차. 1270

이 전쟁으로 유럽이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고 상업이 부흥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 되었다.

2) 이것이 계기가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날 길이 열렸다.

3) 종교개혁으로 교권전횡 시대가 끝을 고하게 되었다.

4)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입었다.

5) 일반민중의 계몽으로 문자와 책의 보급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민중들은 문맹이었고, 책은 너무 귀한 것이어서 평민들이 사서 읽을 수 없었다.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17,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과 민중 계몽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반 민중들도 문맹(文盲)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책을 읽고 글을 쓸 줄 알게 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민중들에게 3R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3R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첫 발음 글자들이다. Reading, wRiting, Reckoning이다.

마침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집권으로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의 군대에게 납치되면서 교황권은 죽게 되는 상처를 입고 그 세력이 꺾였다. 또 미국이 독립하여(1776년) 종교와 신앙의 자

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였다. 이런 일과 함께 민중들도 성경을 마음 놓고 읽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때맞추어 대영성서공회가 조직되어 성경을 대량생산하여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가 1804년이다. 이때부터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까지는 40년인데, 성경 세대로는 한 세대가 된다. 이런 역사적 분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려고만 하면 마음 놓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으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 정결 되어야 할 성소(1)

2300년 후인 기원 1844년에는 이 세상에 성소가 없어지고도 많은 세월이 지난 때이다. 예수살렘 성전은 기원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당연히 성소봉사도 중단되었다. 그런데 거의 1800년 후에 없는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여지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다.

1840년대 기독교내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성소를 이 지구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것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8:14을 해석한 결과 1844년의 속죄일이 되는 양력 10월 22일에 2300주야가 끝나기 때문에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에 근거하여 그날 예수 재림한다고 외치는 재림 기별이 온 미주를 울렸다. 그러나 그 예언적 기별의 외침은 빗나갔다. 성소정결을 예수 재림으로 이해한 것이 잘못 된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였다.

[계10:1-3]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뢰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계10:8-11]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갇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갇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펴 놓인 책이란 이때 퍼지기 전에는 단혀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마지막 때에 봉함이 열릴 책은 다니엘서뿐이다. 이때 다니엘서가 해석되도록 열렸다는 말이다. 예수께서도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셨다.

[마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과연 2300주야 문제는 다니엘서에 계시된 것으로 이 역사적 시점에서 해석되었다. 결과로 예수께서 1844년에 재림하신다는 기별은 꿀같이 달았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실망은 엄청난 것이었다. 배에는 몹시 썼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1장 첫

부분에 기록한 성전을 척량(尺量)하라는 기별이다. 곧 성소를 연구하여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이다. 성소기별이다. 이렇게 하여 성소정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소가 회복되고 당연히 제사가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는 성소는 예수께서 친히 봉사하시는 하늘성소이며, 하늘성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상에 있는 성소도 아울러 정결해져야 했다.

5. 정결해져야 할 성소(2)

땅에 있는 성소는 매년 속죄일에 정결예식을 행하였다. 그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었다. 이것은 땅의 성소봉사를 통하여 하늘 성소봉사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늘 성소에도 정결봉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늘 성소봉사를 매년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봉사가 2300주야 끝에 시작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성소정결은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데, 하늘에서 성소정결봉사를 하시므로 세 가지 성소가 정결하여 지게 된다.

[히9:11-14]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결하여진다고 가르친다. 하늘성소 정결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고전3:16, 6:19,20; 고후6:16).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이다(요2:21; 엡1:23, 2:20-22).

성경에서 제시된 정결해져야 할 성소는 이렇게 모두 세 가지이다. 예수께서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늘성소를 비롯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다 정결해져야 한다. 이것이 2300주야 끝에 정결해져야 할 성소이다.

[고후6:16-7:1]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우리는 이런 시점에 성소정결을 경험한 재림성도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정결해야 한다.

[요일3:2,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